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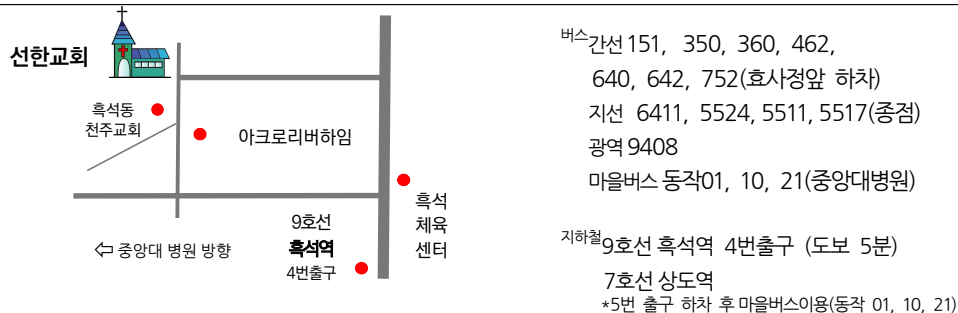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50장 (통일찬송가 71장)	
교 독 문		교독문 38 (시편 92편)	
찬 양 과 경 배		191장 (통일찬송가 427장)	
대 표 기 도		조운익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7장 15~20절	
설 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미혹되지 말지어다 (잠7:1-27)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다음주 대면 예배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에 따라 결정 하겠습니다 (교회공지) 1.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설교 자료만 제공 / 금요일기도회는 영상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수16장~삼상7장] 4. 경건서적읽기 : 부서별로 추천도서중 1권 선택 독서 후 나눔 [가정별 선물전달: 임대원, 윤진집사 마스크 기부]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어려운 시기가 낙심이 아닌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가정예배

한가운데 서라

찬송 : ‘네 병든 손 내밀라고’ 472장(통 530)

본문 : 마가복음 3장 1~6절

말씀 :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갔을 때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손 마른 사람의 절박한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얻을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참 못됐죠.

손 마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의 정경 말고 외경 중에 ‘나사렛파 복음’이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태복음을 좀 더 상세히 해설해 놓은 책인데, 이 책에서는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공으로서 손으로 양식을 마련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구차하게 양식을 빌어먹지 않도록 저를 다시 낫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복음서의 분위기와 맞지 않지만, 그의 직업이 석공이라는 말은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와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라는 말에 깊은 뜻이 서려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의 장애가 부끄러워서 주변에서 빙빙 돌기만 했을 뿐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 가운데에 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잔뜩 주눅이 든 채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며 지냈습니다. 변두리 인생이고 ‘한데 살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당당하게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제 고향 충남 보령 출신 소설가 이문구의 소설, ‘관촌수필’에도 ‘석공’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돌장이’이고, 충청도 말로는 ‘돌쟁이’, 혹은 ‘돌쫓시’라고도 하지요. 석공 신씨는 보통 학교를 겨우 마친 사람이지만 동네의 굶은일은 죄다 도맡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을 정도로 심성이 고운 사람입니다.

신씨는 돌쟁이답게 쓸모있는 돌을 보면 모아놓았다가 동네 사람들이 방고래를 놓거나 굴뚝이나 담장을 쌓을 때 가져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 집 농사일뿐만 아니라 동네의 크고 작은 일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마을의 상엿집이나 독을 고치는 일에 앞장섰고, 동네의 험한 초상을 치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

다. 남의 일도 열심히 잘해 주어서 동네 사람들은 서로 신씨의 품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타고난 일꾼이죠. 작가 이문구는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에 남는 사람으로 단연 돌쟁이 신씨를 꼽고 있습니다. 신씨는 연작소설 ‘관촌수필’ 속의 또 작은 소설 ‘공산토월’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주인공 신씨는 소설가로부터 ‘자기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이웃과 남을 위해 몸을 버릴 줄 아는 어진 인간상’이라는 후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문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변두리 인생 돌쟁이를 자기 소설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흡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7:15-20)	
서론	기독교인들은 좋은 나무이므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론	1.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구별법 (1) 품종을 보면 알수 있다(16절). (2)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15,17-18,20절). (3)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19절) (4) 예수님의 성품(마11:29)과 하나님의 말씀(딤후3:16,17)으로 좋은 열매(갈5:22,23)를 맺을수 있다. 2. 교훈 (1)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가? (2) 성령의 (극상품)열매를 맺고 있는가(사5:1-4)? (3)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수 있는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결론	예수님을 닮아 최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윤익 장로	윤호중 장로

매일 Q.T.		애굽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위로	날짜 : 10월 19일
찬양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시되		
본문	예레미야 46:13~28		
	하나님께는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는 남부 애굽의 수도이며, '아몬'은 남애굽의 최고 신으로서 생산의 신입니다. 바로의 본궁이 있고 애굽의 행정부와 주요 신전이 있던 노가 진멸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범죄한 자나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핍박한 열국은 멸하시지만 그 백성은 포로 된 땅에서 회복시켜 본토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고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으로는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살인죄를 범하고도 뽀뽀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했던 가인까지도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 가운데 빠져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묵상질문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이 있었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찬양과 기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새 290)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아람 왕의 대군이 이스라엘에 제2차 침공을 단행했습니다(왕상 20장). 매년 산에서 싸워 졌다고 생각한 아람은 이번엔 평야 지대인 아베크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은 수적으로 절대 열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군을 다시 한 번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맘대로 해석한 아람 군대의 생각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야 전쟁에서 그분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양군이 대치한 지 7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군은 하루에 아람군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도주하다 무너지는 성에 아람군 2만 7천여 명도 깔려 죽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람의 생각처럼 '산의 신'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홀로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다른 여러 신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주권을 진정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분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말씀 나누기	예레미야 47:1~7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십니다. 겉보기에 블레셋은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 같지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분의 통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원칙을 거부하는 대적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오늘날 세상 역사가 사람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하나님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도,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성도에게는 겸손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이 블레셋에 대해 말씀하신 때는 언제인가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휩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1~3절)	
적용하기	하나님이 열방에 심판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내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세상 가치를 추구하던 제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낱 미물과 같은 인생을 굽어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섭리로 저를 다스려 주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모압의 멸망과 회복 약속	날짜 : 10월 23일
찬양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예레미야 48:36~47		
	모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었으므로 질그릇같이 파괴되었습니다. 모압은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질그릇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를 무론하고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것이 본분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범죄한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압은 더 이상 한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은 주전 1세기경에 나바타족에 의해, 후에는 아랍족들에 의해 점령되어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나라의 존립 여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이 범한 죄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압은 철저히 패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압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간 자들은 말일에 돌아오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일은 신약 시대를 가리키고,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묵상질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블레셋의 멸망 예언	날짜 : 10월 20일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 가며		
본문	예레미야 47:1~7		
	범죄한 블레셋을 징벌하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본문에서 북방에서 일어나 창일하는 시내로 비유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창일한 시내에 비유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하여 무서운 힘으로 블레셋을 침공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홍수가 일어나면 그 물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블레셋을 침공하는 바벨론 군대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죄악이든지 이것을 묵인하는 일이 도무지 없으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법이므로 죄와 짝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갑돌'이란 그레데 섬의 별명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동족인 블레셋 사람이 당하는 위협에서 구하기 위해 원정군을 보내어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합까지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 미칠 때에 블레셋 사람들 모두 진멸되고 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블레셋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서 반드시 실현되고야 맙니다. 아무도 변개할 수 없고 아무도 업신여길 수 없는 것,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으며 우리의 안력이 미칠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수정이나 변경, 취소되는 것도 가능하나 그분의 뜻은 인간의 요구나 주장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잘 선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질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심판을 받게 될 모압	날짜 : 10월 21일
찬양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본문	예레미야 48:1~25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당시 같이 빠져 나온 두 딸 중 큰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모압 족속은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 남쪽에는 세렛 시내, 서쪽으로는 사해, 동쪽으로는 사막과 인접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친 상간으로 형성된 모압 족속을 선민 이스라엘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법을 정하셨습니다(참조, 신23:3-6). 이들은 지방 신을 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한 영토는 관계가 잘되어 있는 고원 지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침략이 적었고 풍성한 곡물이 나왔습니다. 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종교상의 이유라든가 그밖의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청빈생활을 지향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를 좋아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가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이 가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위협의 대상인 것입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은 공작과 보물을 의뢰하고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공작이란 국가를 수호하려는 노력을 말하고, 보물이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부요를 말합니다.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도취된 모압을 파멸하는 자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한 성도 제외하지 않고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입니다. 모압이 가져오는 전쟁의 고통은 전국적인 것입니다. 전쟁이 가져오는 참상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예레미야는 모압이 당할 극심한 재난과 침략자의 잔인성을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묵상질문	심판과 은혜를 받는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교만한 자를 징계하심	날짜 : 10월 22일
찬양	찬송가 483장 구름같은 이 세상		
본문	예레미야 48:26~35		
	모압 백성은 자신들이 용사요, 전쟁의 맹사임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으며 튼튼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전쟁에서도 안전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압 백성들의 지나친 과신은 재난을 불러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재난이 속히 임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모압을 취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열방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모압이 가진 지형적 유익성과 비옥한 토지로 인한 경제적 풍요는 그들의 마음을 현실에 집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즉 그들은 심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척이었음에도 모압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모압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그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은 그들이 섬기던 주신인 그모스가 그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주며 전쟁 중에서도 그들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과 신을 모셔 놓은 산당을 파괴하여 제사를 중단시킬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없으면 참 신앙에 서지 못하고 도리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 악행을 하게 됩니다.		
묵상질문	내가 자기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